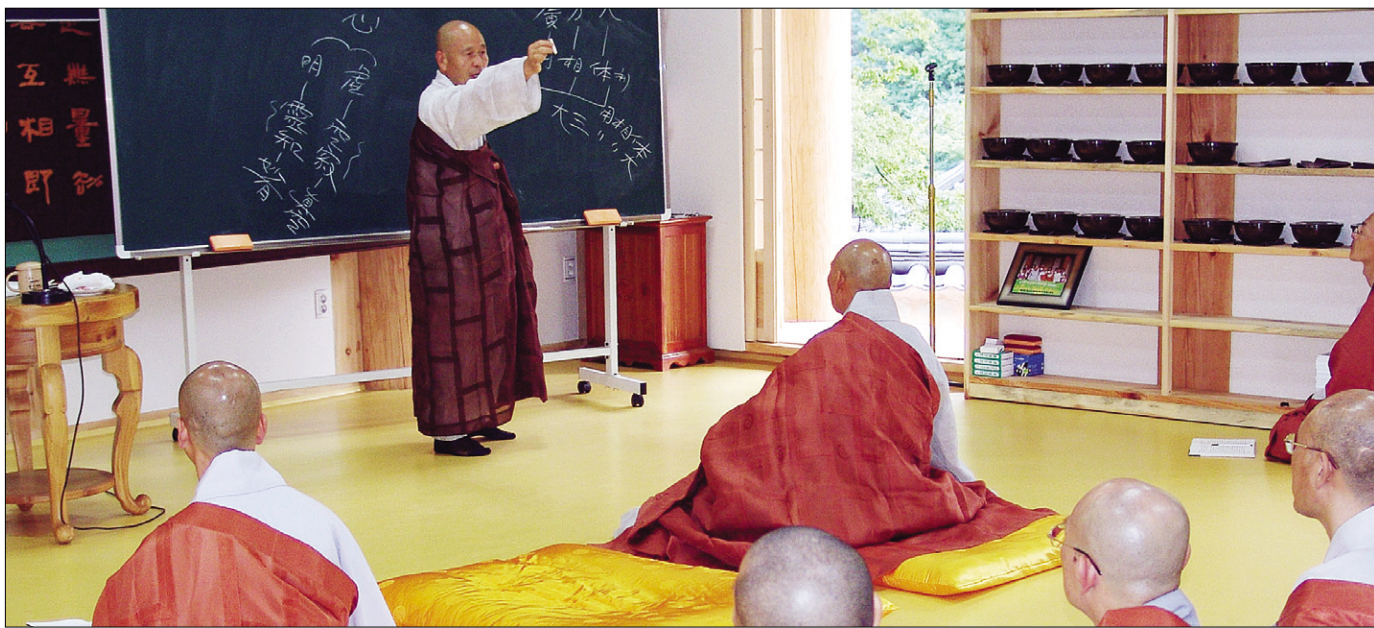


# 보현행원으로 보살행 닦아야



하나 일심(一心)을 떠나서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화엄경>의 대의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정·무정(有情無情)과 물질계, 정신계, 세계, 인과가 모두 일심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심은 만유의 실체(本體)로서 부동(不動), 주원(周圓), 두루 원만함, 불생(不生), 불멸(不滅), 불변(不變), 수연(隨緣), 공적(空寂), 영지(靈知), 상주(常住), 묘명(妙明), 원융(圓融), 광대(廣大), 무애(無碍), 자재(自在)한 것입니다.”

각성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7차 법문이 모두 일심(一心)을 밝힌 것이니, 일심을 깨달아 알 때가 곧 ‘대방광불화엄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화엄법문은 결국 일심을 떠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일심법계(一心法界)이고 나아가서는 사법계(四法界), 심법계(心法界), 십현문(十玄門) 등으로 펼쳐집니다. <화엄경> 전부가 법부에서 보살, 보살에서 부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자세하고 광범하게 설명한 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하면 돈오(頓悟), 점수(漸修) 두 가지 문으로서 한 마디로 하면 지행원구(知行圓具)라는 덕자에 불과합니다.”

스님에 따르면, 문수는 지(智)요 보현은 행(行)이며, 문수는 돈오요 보현은 점수이며, 문수는 원융문(圓融門)이요 보현은 행포문(行布門)이 된다. 결국 지혜와 덕행을 쌓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즉 문수와 보현이 합일되면 비로자나불이 되니 삼성원융(三聖圓融)이 이뤄지게 된다. 일심에 즉 해서 만행을 밝히고(卽一心而明萬行), 만행을 닦아 일심을 밝히는 것(修萬行而明一心)이 곧 화엄사상이란 해석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다른 경과 달라서 보현보살의 행문(行文)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예

컨데 도달할 목적지를 눈으로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한 발, 두 발 걸어가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과 같습니다. 보현의 행원(行願)으로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할 때까지 언제나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보살행을 닦아서 구경에 성불하는 것입니다.”

각성 스님은 구도자가 발심해서 선지식을 찾아 묻고 배우고 깨달은 후에는 항상 이타행을 전제로 하는 보살행을 닦아 불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구하는 보현행원을 닦으면 성불은 그 가운데 있다며,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첫 회 2시간 여의 열강을 끝내면서 각성 스님은 화엄법문의 네 가지 핵심(四要)으로 심입부동(心入不動), 마음이 부동삼매(不動三昧)에 드는 것, 선용기심(善用其心), 마음을 잘 쓰는 것, 입대서원(立大誓願), 큰 서원을 세우는 것, 수대행해(修大行海), 큰 수행을 쌓는 것,를 제시했다.

“한마음을 밝히면 만법을 통괄한다(一心統萬法)”고 했다. 수행자의 본분사인 깨달음의 성취는 물론이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마음 찾는 과정은 절대적인 과제임을 이번 화엄법문은 거듭 깨침을 주었다. 아울러 오늘날 종교, 이념, 국도, 지역으로 분열된 이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사상적 배경이었던 화엄사상에 대한 참가가 더욱 절실함을 느꼈다. 각성 스님이 평소 ‘통화(通和: 통일 화합)’라는 신조어를 사용해 온 것도 이러한 화엄사상에서 기인한 것임은 물론이다.

의상 대사와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인연처럼 고운사 숲길을 내려오면서 동시대 화엄의 최고봉이었던 원효 대사가 애송했던 <화엄경>의 한 계송이 떠올랐다.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났다(一切無碍人一道出生死).” 원효 대사의 크나 큰 중생제도와 원력과 무애 자재한 보살행을 본받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시대의 일승(一乘)보살들이 곁을 떠나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대방광불화엄경’을 염해 본다.

글·사진=김성우 기자

### 각성 스님은...

1938년 전남 장성의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세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4서3경을 배웠다. 1954년 <5천년 조선역사>란 책에서 울곡 이이 선생이 절에 들어가 3년간 <능엄경>을 공부했다는 대목을 읽고 백양사를 찾아가다. 1955년 18세에 선사이자 율사인 해인사 백련암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세에 비술산 도성암에서 ‘옴마니반메훤’ 6자언 수행으로 오온이 공한 체험을 했다. 이후 당시 3대 대강백이라는 관공, 탄허, 운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한 스님은 50여 년간 수많은 스님과 제자들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강의해 왔다. <능가경> <수능엄삼매경> <대도직지> <불조직지심체요절> <유식논강의> 등 20여 저서를 낸 바 있는 스님은 ‘통화총서’ 300권 원간을 목표로 저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고회를 지난 세수에도 부산 화엄사 회주,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 원장, 화엄학회 회주 등을 맡아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60. 대각회 법주 광덕 큰스님

금 하 광덕(金河光德, 1927~1999) 스님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이자 불광법회 법주로서 월간 <불광> 잡지를 발행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깊이 박혀 있는 선지식이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7세부터 6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사랑하던 누이까지 잃고 인생무상을 절감한 후 1950년 부산 범어사 동산 스님께 귀의했다. 1953년 신소천 스님의 ‘깨달음의 운동’에 동참하고, ‘금강경 독송 구국원력대’에도 동참해 전국을 순회했다. 1954년 금정사에서 한 소식을 얻고, 부산 범일동에서 최초의 법등가족법회를 주일마다 열다가 1956년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게 되었다.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이 되고, 1962년 총무국장이 되

흔적 없이 도왔으며,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본인은 드시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음식을 마련해 전해주곤 하였다.

항상 얼굴에 밝은 빛이 솟아 있었고, 마음 한 구석에도 그늘진 곳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971년 정답 스님 돌



했을 것이다. 내가 고민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늘 하신 말씀이다. 이 세상에 받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참회·구도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았고, 집 한 채를 지어도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던 것이다. 그분의 일생은 <명상언어집> <금강경>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반야심경> <보현행원> <지장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언제나 강동구 천호동 쪽에서 전화가와, “우리 절 법회를 좀 보아주시지요.”

하여 갔더니 바로 광덕 스님의 큰 제자가 운영하는 절이었다. 신도의 조직이며, 법회의 절차가 법도 있게 운영되어 큰 스님의 영험이 대각사나 법안정사

### 1994년 불광회 창립해 순수불교운동 전개... 문서포교도 앞장

어서는 종편·종법·불교재산관리법 등을 성안하고, 1963년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를 만들었다. 1965년 범어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대학생법회에 참여한 것이 스님과의 큰 인연이었다.

광덕 스님은 항상 몸이 약해 틈만 있으면 혼자 계시기를 좋아했는데, 한번은 봉익동 대각사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나는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병원에 가니 폐를 자르기 전에는 살 수 없다 하여 고민하였는데, 그날 밤 꿈을 꾸니 ‘내가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는 폐로 숨을 쉬지 않았다’ 하여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단전복기(丹田腹氣)를 하면 나를 것 같아 수술 후에는 단전복기를 하여 폐를 무리하게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수행승들이나 신도,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신 뒤 총무부장을 맡아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었던 것이다. 1994년 대각회 이사장이 되어서는 불광회를 창립하고 순수불교운동을 전개하면서 부터는 10억 원, 108만 회로 모법적인 분을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1979년부터 불광출판부를 개설해 문서포교에 나섰으며, 1992년 도서출판 ‘한강로’도 만들었다. 이렇게 중생을 다방면으로 교화하는 가운데서도 범어사에 금강계단을 만들어 선찰 대본산의 면목을 살렸다. 1992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보현행원가’를 발표해 불교음악의 창작성을 드높였다. 이렇게 일생을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하화중생(下化衆生)하시던 분이 1999년 2월 27일 열반에 드셨으니, 진실로 이 시대의 보살이요, 조사이다.

“나는 병이 들지 않았으면 감히 병든 사람들의 속을 알지 못

어만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생각했다.

동국대학교 이사들 가운데 10년을 넘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스님은 20년 동안 이사로 지내면서도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연꽃처럼 깨끗한 분.” 누구나 보면 절 절하고, 칭찬하고, 공경 공양하여 살아있는 보현보살로 통했다.

어두운 곳엔 빛이 깨일이고 배고픈 사람엔 음식이 깨일이다

보고 들은 이름과 모양은 모두가 거짓 진실은 실로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님께서 불광 청년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법어이다.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